



소금과 빛

1. 오늘 마태오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이며 또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음식에 맛을 주고, 10%도 되지 않는 염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바닷물을 섞지 않고 온갖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기희생과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맛을 내는 사명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촛불, 등잔불, 전등 빛 등 그 어떠한 것도 빛의 본래 의미는 주변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가 자리한 그 현장에서 빛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기쁨의 빛, 구원의 빛, 웃음의 빛, 화해의 빛, 해방의 빛, 자유의 빛, 또 앞과 미래를 밝혀 주는 길잡이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반딧불의 불빛만으로도, 눈에 비치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 등대 불빛은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빛의 사명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소금과 빛의 긍정적 역할뿐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부정적 역할이란 곧 역할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등불을 뒷박으로 덮어두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의 의미와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제자들의 본질과 사명이 역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위한 맛과 부패 방지의 상징인 소금이, 그리고 밝음을 주는 빛이 되어 살아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2. 인간은 소금의 원천이 되는 장소나 소금을 교역할 수 있는 장소 주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금은 금의 무게와 가치가 거의 동등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최고는 바퀴이며, 발견한 것 중 최고는 불이다.”고 말합니다. 이 둘을 통해서 인류는 문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특별히 불 때문에 어둠과 추위의 공포를 극복하고, 화식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소중하고, 귀하며, 최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특별함을 잊지 맙시다.



박영진 베드로 신부 | 함양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58,7-10

화 답 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 2 독 서 1코린 2,1-5

복 음 마태 5,13-16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5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 최근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는 김범우金範禹다. 그는 서울의 역관譯官 집안에서 태어나 1784년 이벽의 권유로 입교한다. 1785년 자신의 집에서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등과 함께 종교 집회를 갖던 중 형조의 관리에게 발각돼 체포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문의 양반이라 형조로부터 훈방 조치되지만 김범우는 혹독한 심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한다.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김범우는 경상도 밀양 땅으로 유배된다. 이곳에서 일 년 남짓 살면서 선교에 힘쓰다가 1786년 가을에 선종했다. 형조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다. 비록 칼 아래 참수되는 죽음은 아니었지만 고문의 여독으로 죽었으니 분명 순교다. 이렇게 해서 그는 조선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충청도 단양을 유배지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밀양군 단장면으로 확인되었다. 단장면 일대에는 이전부터 피난 교우촌이 많았고 김범우 선교로 입교한 사람들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 부산교구에서는 김범우 순교자의 무덤을 확인한 바 있다.

두 번째 순교자는 전라도 진산 출신의 윤지충尹持忠과 경상도 안동 출신의 권상연權尙然이다. 두 사람은 고종사촌 간이었다. 1791년 윤지충은 모친상을 당한다. 권상연에겐 고모였다. 두 사람은 정성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위패를 만들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내린 조상제사 금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런 사실이 지방의 유림儒林에 알려지자 그들은 지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끝내는 관가에 고발되어 체포된다. 이들은 진산 군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드러냈고 전주 감영으로 이송돼 1791년 참수 치명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 사실은 정조실록에 실려 있다. 김범우는 1786년 사망했고 윤지충과 권상연은 5년 뒤 순교한 셈이다.

김범우는 경상도 밀양으로 유배 왔었다. 순교자는 일찍 죽었지만 그의 무덤은 밀양군 단장면에 있었다. 이 사실은 이곳으로 피난 교우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단장면과 하동면(현재의 삼랑진)에 있었던 용전, 붉은 독이, 읍실 등은 그 무렵 형성된 전통 있는 교우촌이다. 특히 삼랑진 우곡리에 있었던 읍실공소는 영남지방 첫 공소로 알려져 있다.

삼랑진은 단장면 남쪽에 있다. 밀양강 동쪽이기에 하동면下東面이라 했고 마을 이름은 삼랑리三浪里였다. 세 물결이 넘실거린다는 뜻이다. 낙동강과 밀양강이 만나고 밀물 썰물 차가 심할 때는 바닷물도 역류해 들어오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삼랑진은 여기서 유래한다.

삼랑진 일대는 피난 교우들의 잠정적 귀착지가 된다.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던 피난 교우들이 밀양의 초동면과 하남읍, 김해의 이북면, 생림면 일대에 교우촌을 형성하며 정착했던 것이다. 훗날 이 교우촌들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친교를 두텁게 했고 혼사도 더러 이루었다. 순교자 김범우 유배지에서 맺어진 결실이였다.

1897년 이 지역에 본당이 설립된다. 밀양의 명례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한 것이다. 경남 두 번째 본당이었다. 주임 신부는 강성삼 신부. 그는 김대건, 최양업 신부 다음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다섯 번째 신부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휴양을 겸해 명례에 거주했던 것이다.

명례본당은 낙동강 유역의 오래된 공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강을 따라 내려왔던 피난 교우들이었다. 강성삼 신부는 명례본당에서 선종한다. 그가 죽자 본당은 다시 공소로 환원되었고 완월동본당 소속이 되었다. 그러다 1926년 다시 본당이 되지만 4년 뒤인 1930년 교통이 편리한 삼랑진으로 본당이 옮겨간다.

신부님, 신학을 우찌해야 합니까?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번에 '신학'은 내가 바로 여기 숨 쉬고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곧 '지금, 여기서' 내가 믿고 사는 신앙의 내용들을 나의 말, 나의 물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신학을 우찌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다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수 있으며, 스스로 생각해 보고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구원 의지를 곰곰이 새겨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하느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말씀의 뜻을 곱씹어 보고, 묻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거창하지만 인간의 본질, 세상의 원리, 진리의 원천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고뇌하고, 때때로 분석하고 종합하며 결론을 내기리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철학하는 인간, 필로소피쿠스 Homo Philosophicus'입니다. 비단 철학자들만이 아닌, 우리도 분명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 생각하며 삽니다. 때론 피곤한 세상에서 그저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 곧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삶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찾는 이유를 헤아려 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혜를 사랑하는 인간의 방식, 곧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과 삶의 논리를 찾아보는 것이라면, 신학은 그 세상을 지탱해 주는 신비, 곧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로 세상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旅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철학은 신앙을 더욱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 가는데 철학의 방법론'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것이라고 한때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믿음을 방해한다고,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강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질문하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믿음은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이 많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은 "배움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신학 역시 올바른 신앙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전통에 대한 질문이든, 오늘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든, 정직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신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은 '가르치는 일'이라기보다는 '경청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신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상호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청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린 대화입니다.

또한 신학을 하려면 자기 성찰(省察)을 수반해야 합니다. 성찰은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지 타자를 성찰하는 일이 아닙니다. 타자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언제나 자기반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하는 일은 신앙과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말과 신념, 감정과 행동, 관점과 태도를 사유하고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 행동, 태도가 정말 복음적(신앙적)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 실제적 내용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신앙의 말들과 그저 종교적 관습에 따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태도들이 신앙의 징표일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온 인류와 세상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이 찾는 지혜의 길에서 참된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영성의 길입니다.

빵의 기적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첫 번째 글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작은 자매들은 성 샤를 드 푸코 신부의 영성을 따라 세상 안에,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관상을 살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하느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런데 푸코 성인 외에도 우리 공동체에 깊이 영향을 준 성인들이 있다. 그중 성 칼라브리아 신부의 영향을 받아 우리 공동체 설립자 안드레아 신부는 공동체를 온전히 '섭리에' 내맡기기로 한다.

2월 11일은 우리 공동체가 기념하는 '빵의 기적'일이다. 공동체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추운 겨울 새벽, 돌보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안드레아 신부는 6km 떨어진 성모기념성당으로 눈길을 걸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같은 시각에 어떤 신사가 찾아와 아이들이 있는 한 아이들을 위한 빵값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다. 이 일화는 단지 하느님 손길의 시작일 뿐이었다.

콘체타 자매의 섭리에 관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자.

“정말 사실일까?”

하느님 섭리에 관해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하필 내가 부엌 당번이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식자재라고는 양배추와 상추, 완두콩이 전부였다. 10시쯤 한 아이가 부엌문을 열고 “오늘 점심에는 뭐 맛있는 게 나와요?” 하고 묻는다.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라고 일축해 버렸지만 사실 가스 위에는 맑디맑은 물만 끓고 있었고 스스로에게도 ‘정말 사실일까?’ 하고 묻고 있었다. 11시 종이 울린 지 한참이라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파스타, 구운 고기, 햄, 달콤한 후식까지 잘 준비된 점심을 가지러 오라는 어느 아주머니의 전화였다. 나는 벅찬 기쁨과 후회로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늘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좋으신 하느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증언할 체험들은 수없이 많다. 지난 칠십여 년 동안 고정 수입원 없이 세계 9개국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기적이다. ‘섭리에 내맡김’을 살기 위해 우리 회칙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기금 조성이나 고정 수입을 갖지 말며 모든 봉사는 무보수로 할 것. 모금 운동이나 후원회 조직을 하지 말 것이다.”

안드레아 신부는 섭리에 내맡김은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임을 믿는 순수한 신앙에 의 부르심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할까 봐 얼른 “섭리에 내맡김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짜낸 후 그분을 믿고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이셨다. 이 말씀은 물질 만능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더욱더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독려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정말일까? 공동체의 역사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다만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일깨운다.

깍두기

김현주 스텔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가는 바람에 전자 대리점에 들렀다. 저장해 둔 사진과 문서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장날이기에 돌아보고 오겠다고 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옷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던 뉴스가 나온 게 어제 같은데 웬걸, 한파가 닥쳐서 시장은 조용했다. 코로나로 힘들고, 한파로 힘든 겨울이다 싶어 빈손으로 둘러보기 죄스러운 지경이었는데 무 몇 개를 앞에 두고 발을 동동거리던 할머니가 보였다.

“이거 몽땅 5천 원에 가져가요. 오늘 나오는 게 아닌데, 추워서 들어가려고...”

우리식구들은 김치 없이는 한 끼도 먹지 못하는 토종입맛을 가졌지만 배추김치파와 무김치파로 나뉜다. 나는 무김치파, 특히 깍두기를 좋아한다. 방금 담아도 아삭거리는 그 맛이 좋아서 익기도 전에 먹어치운다. 그 할머니 말씀처럼 무는 아삭하고 달았다. 다듬으면서 집어먹고, 양념을 무치면서 간을 본다는 핑계로 또 먹으면서, 깍두기였던 시절이 생각났다. 조직의 힘(?)을 내세우는 그들을 깍두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절을 일컫는 말이 절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과 게임에는 썬병이어서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에서는 첫판에 나가떨어졌다. 고무줄을 머리 위까지 올려도 훌쩍 뛰어 한 번에 감아올려 뛰는 친구들을 보면서 뒤로 슬금슬금 빠지면, 꼭 깍두기라고 하면서 놀이에 끼워주었다. 편을 잘 때 깍두기를 두려면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에서 거의 신공에 가까운 기술을 가져야 이기는데도 늘 함께 놀았다.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는 신세를 깍두기라고도 한다지만, 내가 아는 깍두기는 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다.

지나해, 아이동행 수업을 하면서 학습장애, 품행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는 아이들을 만났다. 또 선택적 함구증을 겪고 있기도 하고, 여러 사정으로 고립된 ‘섬 같은 아이’였다. 학교에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섬처럼 따로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하나같이 기다리는 것은 친구였다. 듣고 싶은 말을 꾸며 보는 북아트 활동에서 인조인간에게 ‘나랑 친구하자’, 상상 속의 친구에게 ‘같이 게임하자’고 쓴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회성발달과 학습격차를 걱정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줄의 끝에 있거나 줄밖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려는 공감은 잊은 지 오래다. 그런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인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던 것은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것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가 느꼈던 그리움의 순간들이 이루어져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오길 기도했다. 깍두기를 담그며 함께하는 것을 배웠던 깍두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피어나기 위해 흔들리는 어린 꽃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기억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민수(유스티노) 신부
2013년 2월 7일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 성경봉사자 개강미사
일시: 2월 12일(주일)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2월 7일(화)
본당: 구암동/ 호계
일시: 2월 9일(목)
본당: 북신동/ 지세포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7일(화)
본당: 양덕동/ 산호동
일시: 2월 8일(수)
본당: 봉곡동/ 옥봉동/ 양곡/ 가음동/ 사람동/ 팔용동
일시: 2월 9일(목)
본당: 석전동/ 삼계/ 평거동/ 칠암동

교구/본당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2월 8일(수) 10:00
장소: 교구청

연구1년 영신수련 8일 피정
일시: 2월 9일(목)~16일(목)
장소: 순천 예수회 영성센터

고3캠프
일시: 2월 11일(토)~12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입신학생 피정-고3캠프 참석
일시: 2월 11일(토)~12일(주일) 1박 2일

성경교육 봉사자 피정 및 개강미사
일시: 2월 11일(토)~12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성서 그룹공부 모집 안내
대상: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
모집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그룹모임: 지역별 모임과 Zoom(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010·2549·3056(담당 신부)
010·4596·1533(담당 봉사자)

위원회/기관/단체

연령연합회 제17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1일(토) 14: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대상: 본당 연령회장 및 회장단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22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부산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율피정
일시: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2월 11일(토)/ 3월 11일(토)/ 4월 8일(토)/
5월 13일(토)/ 6월 10일(토)
장소: 부산 로사리오의 집
문의: 010·7155·3498,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추가 모집 안내
접수: 2월 13일(월)~17일(금)
전형일정: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참조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2월 6일(월) 13:00	중앙동성당	낮피정(저녁기도회 없음)	김재덕 베드로 신부(대전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p>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p> <p>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p> <hr/> <p>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마산 성바오로서원은 새 교구청으로 이전한 후에도 현재 교구청 자리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9753-3089</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p> <p>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우리농 정밀공급</p> <p>가톨릭 우리농 직매장</p> <p>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p> <p>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p>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제주도 성지순례(6명 이상 매일) 3월 10일/ 3월 13일 / 3월 28일 제주순례</p> <p>■한국 성지순례 3월 17일(금)~19일(주일) 수원교구 3일(부산 출발)</p> <p>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hr/>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p> <p>·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	--	--	---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문의: 061·432·9240~1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2월 12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10일(금)까지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3월 개강)

내용: ·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임숙희 박사
·성경대학: 공관복음1-송봉모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여호-2열왕-주원준 박사
·꿈을 통한 영적 치유-홍기령 교수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흥경자 교수
▶실시간 줌(ZOOM) 강좌: 매주 화요일 19:00~21:00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일정: 4월부터 1년간/ 수강료: 3개월 30만 원(주 1회 2시간)
zoom강의: 구약(목-10:00/ 19:30)/ 신약(수-19:30)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눈꽃산행: 2월 12일~14일/ 2월 18일~21일/ 2월 24일~26일
성지순례: 3월 12일~15일/ 3월 25일~28일/
4월 15일~18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2월 13일~15일/ 2월 18일~20일/ 2월 26일~28일/
3월 4일~6일/ 3월 9일~11일/ 3월 13일~15일/

3월 18일~20일/ 3월 24일~26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제주자연피정(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064·796·4182

세계병자의 날 치유피정

일시: 2월 11일(토) 10:00~17:00
장소: 월막피정의 집(대구 성령봉사회 회관)
강사: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10·9045·019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2월 25일(토)~26일(주일)
3월 4일(토)~5일(주일)
3박 4일- 3월 9일(목)~12일(주일)
4월 27일(목)~30일(주일)
8박 9일- 2월 10일(금)~18일(토)
3월 20일(월)~28일(화)
40일: 4월 11일(화)~5월 20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2023년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피정 안내

일정: 경상 충청 외 기타 지역-1박 2일
토 15:00~주일 14:00 (총 24강)
3월 18일(토) 15:00~19일(주일) 14:00
4월 29일(토) 15:00~30일(주일) 14:00
6월 10일(토) 15:00~11일(주일) 14:00
7월 15일(토) 15:00~16일(주일) 14:00
9월 16일(토) 15:00~17일(주일) 14:00
11월 18일(토) 15:00~19일(주일) 14:00

장소: 왜관 베네딕도 피정의 집
접수: 1인 1실, 선착순 40명
▶입문반 수수료증 수여
문의: 010·6791·0071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2023년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일시: 7월 21일(금)~8월 12일(토)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바람
문의: 062·373·0943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일시: 2월 6일(월) 13:00~17:0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로마 교황청립 성서연
구원 성서학 전공,
현-대전교구 천안
원성동본당 주임)
주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사도 6,4)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2월 15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및 레크에 감각이 있는 사람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마산교구 교정사목을 소개하며

박혁호 미카엘 신부

찬미 예수님!

마산교구 교정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혁호 미카엘 신부입니다. 올 한 해 가톨릭마산(교구보)에 교정사목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지면을 통해 신자 여러분이 교정 사목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사목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교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목적 배려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고, 참 인간화와 복음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사목은 주님의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만나고 돌보셨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마태 25,36)는 말씀처럼 담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루카 15,1-32 참조). 이처럼 영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당신 사랑의 뜻에서 교정사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교구 교정사목도 주님의 이 뜻에 응답하여 길을 잃은 양들에게로 걸음을 재촉해 왔습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고, 진리와 생명에 대한 말씀에 목마른 그들에게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교구 교정사목은 세 교정시설인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그리고 통영구치소 세 군데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사목을 펼쳐왔고 그 시작의 시기도 각각 달랐습니다. 진주 교정사목은 1986년 5월에 제일 먼저 첫발을 떤었고, 창원은 1987년 2월, 통영은 2004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구 교정사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현재 영적 지원사업과 수용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수용자들을 위한 성사집전(미사, 고해성사, 세례, 견진 등), 예비신자 교리, 레지오 마리아, 성경 공부 및 묵상, 성경 읽기 쓰기, 복음 나누기, 성가 연습, 개인 종교 교화 상담 및 접견 상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지원사업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를 위한 영치금 및 의료비 지원, 각종 신앙 모임 지원, 종교 문화행사 지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수용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회개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록, 또 소외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봉사, 물질 후원이 절실합니다. 담장 안의 형제들이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